March 2021

03 GUNPO YOU 군포시

ISSN 2733-5860

군포소식

GUNPO MONTHLY MAGAZINE

VOL. 398

목련 꽃 눈처럼

목련의 작은 꽃눈이
꽃을 품고 있는 모습이
꼭 실외활동을 조심하며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예전이면
겨울방학 끝나고
짧지만 새로운 만남에 두근두근
봄방학을 맞이했을
우리 동네 초등학생 아이들

어느 화창한 봄날
꽃 필 날을 기다리며,
안전한 내일이 오는
그날까지!
"얘들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 금정초등학교)

CONTENTS

GUNPO MOTHLTY MAGAZINE

March VOL. 398

군포多움

이슈 속으로 Part 1 04

이슈 속으로 Part 2 08

군포情감

어쩌면 감동 10

꽃보다 사람 12

온 & 오프 14

군포多락

굿바이 코로나 랜선 나들이 16

동네 한 바퀴 18

해시태그 G태그 20

군포感동

군포 아리랑 22

브라보 군포 라이프 24

독자 에세이 26

군포U뉴스

군포U뉴스 28

군포시의회 뉴스 32

독자세상 34

군포소식

발 행 2021년 3월

발 행 인 군포시장

발 행 처 군포시청 홍보정보담당관

홈 페 이 지 www.gunpo.go.kr

디자인·인쇄 경인M&B

군포시청과 SNS로 친구맺기

- www.facebook.com/gunpocity
- blog.naver.com/o2gunpo
- www.instagram.com/gunpocity
- www.youtube.com/user/gunpocity
- https://pf.kakao.com/_eDSsxb

정기구독 신청(무료)

031-390-0062

hslee97@korea.kr

※ 구독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군포소식〉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삽화는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군포시 12번째 동 이름은 송부동(松富洞)

동 명칭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되면 최종 확정

송부동 행정복지센터 조감도

VOICEYE
voiceye.com

군포시 군포2동과 대야동에서 인구 증가로 분리되는
새로운 동 이름이 송부동(松富洞)으로 결정됐다.
군포시는 1월 27일 열린 지명위원회에서, 신설되는 동 명칭에 관해 논의한 후
지명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송부동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과 특성 등 고려해 송부동으로 결정

군포시는 지난 1월 27일 지명위원회를 열고 군포시 군포2동과 대야동에서 인구 증가로 분리되는 새로운 동 이름이 송부동(松富洞)으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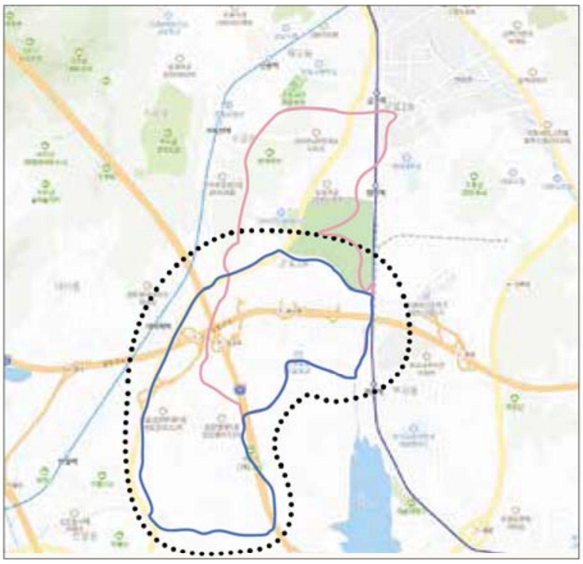
이에 앞서 군포시가 시민 2,652명을 상대로 동 명칭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송부동이 응답자의 5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군포3동이 42%로 집계됐다.

송부동 명칭은 오는 3월 안으로 군포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군포시는 부곡·송정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군포2동과 대야동의 분동을 통한 행정수요 분산과 이들 지구 주민들의 행정·문화·복지 편의를 위해 새로운 동 신설을 추진해왔다.

송부동 신설로 군포시 행정동은 종전의 11개에서 12개로 늘어나게 됐다. 송부동은 기존 군포2동의 부곡지구와 복합물류기지 일대, 대야동의 송정지구 등을 관할로 하며, 면적 6.4㎢에 인구는 1만9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3월 송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를 마친 후 내부 준비작업을 거쳐 7월에 공식 개청할 예정이다.



시민의견 수렴결과

- 설문결과 2020. 8. 1.~ 10. 6.
- 대 상 군포시민 전체
- 방 법 온라인(홈페이지) 및 설문지(지역주민) 병행
- 참여인원 2,652명(온라인 720명 / 설문지 1,932명
- 의견수렴 결과

제안1	송부동(松富洞)	1,496명(56%)
제안2	군포(軍浦)3동	1,109명(42%)
제안3	기타	47명(2%)

문 의

군포시 행정지원과 031-390-0344

코로나19 예방접종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럼 나와 내 가족이 언제 어디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백신 접종 대상 및 일정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 국민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다만 초기 백신 물량이 제한적인 만큼 백신별 공급시기, 효과성, 접종 및 유통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백신 및 접종 대상자를 구분하여 접종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1분기 백신 예방접종 대상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등 고령층 집단 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약 27만 2천여 명입니다. 또한 3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19 방역·역학조사·검사, 검역 요원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1분기 안에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2분기 백신 예방접종 대상

65세 이상 시민들이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하며 장애인 등의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일반 성인(19세~64세)은 3분기부터 사전 예약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백신 개발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들은 추가적 임상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일반적인 성인병을 포함해 만성 기저질환자도 우선 접종 권장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시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30만명	900만명	3,325만명	
가군	• 요양병원·요양시설입원·입소자, 종사자	•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 65세 이상(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성인 만성질환자 • 성인50~64세	
나군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의료인) • 1차 대응용원 (역학조사·구급대 등)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대상 外)	•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 2차 접종자,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 (항체유지 기간 고려)
다군	• 정신요양·재활시설등 입소자종사자	•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종사자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성인 18~49세	

※ ('21 하반기) 접종순서를 고려하되, 백신 도입물량 확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전국민 접종 방법 검토·추진

어디서 접종하나요?

코로나 백신 접종은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국민 대다수가 가까운 곳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중앙-권역-지역 예방접종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마련할 계획입니다. 백신 종류별로 접종 기관이 다르게 운영되는데 초저온 유통·보관과 사용 전 해동·희석 등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을 위하여 약 250개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하고 아스트라제네카, J&J(얀센) 등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접종을 위한 1만 개의 위탁 의료기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요양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는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하여 접종할 예정입니다.

어떤 백신을 맞게 되며 접종 횟수와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하기 위해 백신 종류가 아닌 접종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백신 종류는 접종 횟수와 간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회(8~12주 간격), 얀센은 1회(접종횟수 변경 가능), 화이자는 2회(21일 간격), 모더나 2회(28일 간격) 등입니다.

개발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플랫폼	바이러스벡터 백신		mRNA 백신	
접종횟수	2회	1회 * *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2회	2회
접종간격	8~12주 간격	-	21일 간격	28일 간격

접종 후에는 건강상태 확인 등 준수사항 철저

예방 접종 후에는 접종받은 기관에서 **15~30분간** 머무르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을 충분히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귀가 후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코로나19유행이 통제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은 계속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 접종 안내 홈페이지 http://ncv.kdca.go.kr

군포시, 시민과 함께

봄철 불청객 매미나방 알집 제거 총력

군포시가 관내 수리산의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 해충 예찰방제단과 함께 봄철 불청객인 매미나방 알집 제거에 나섰다. 이는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에 따른 매미나방의 급증으로 군포의 명산인 수리산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시민들 피해 또한 적지 않은 데 대한 예방 차원이다.

지난해에만 143ha 면적의 수리산 일원에 매미나방으로 인한 피해 발생

군포시는 지난 2월 18일 수리산의 고통에 대한 시민들의 안타까움과 함께 생활상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매미나방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매미나방 알집 제거 작업에 나섰다.
매미나방이 대량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열린 이날 제거 작업에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끌개와 장대, 산불 진화차량의 고압살수포 등을 활용한 친환경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군포시는 3월 말까지를 매미나방 알집 집중 제거 기간으로 정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단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알집 제거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용진사 입구 등 9곳에 '수리산, 시민이 함께 지켜요' 등의 안내문과 끌개, 장대, 장갑 등을 비치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알집 제거 후에는 산림청에서 제작한 매뉴얼을 토대로 유충기 등 매미나방의 생활사별로 집중 방제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해서 알집 제거 등 신속하고 집중적인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해 쾌적한 산림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매미나방은 연 1회 발생해 나무줄기에서 알 상태로 겨울을 나며, 유충(송충이)은 3~4월부터 부화해 6월까지 잎을 갉아 먹고, 통상 6월 초부터 7월 초에 번데기를 거쳐 8월까지 성충(나방)이 된 후 1주일 정도 살다가 200~500여 개의 알을 낳고 죽는다.
식엽성 해충인 매미나방은 나무를 고사시키지 않지만, 유충이 잎을 갉아 먹어 수목에 큰 피해를 주며, 유충의 털이나 가루는 사람에게 두드러기나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031-390-04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매미나방 생활사 및 일반정보

매미나방 유충

매미나방 번데기

매미나방 성충

| 분 포 |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북미

| 피해증상 |

유충이 여러가지 활엽수와 침엽수의 잎을 식해하고, 유충 1마리가 1세대 동안 수컷이 700~1,100㎠, 암컷이 1,100~1,800㎠의 참나무류 잎을 먹음

- **매미나방 생활사**
  - 연 1회 발생하며 알로 나무줄기에서 월동(11월~3월)
  - 유충기간 : 45~66일 (4월 중순~7월 상순)
  - 번데기 기간 : 15일 내외(7월 상순~8월 상순에 우화)
  - 성충의 수명 : 7~8일
  - 난괴당 알 수 : 평균 500개

- **2020년 매미나방 발생 현황**
  - 수도권, 강원(영서), 충북(중북부), 경북 등 일부 지방에 국지적 대발생(6,183ha)
  - 서울(1,676ha), 경기(1,496ha), 강원(1,203ha), 충북 (759ha), 인천(618ha)
  - 우리시의 경우 수리산 일원 대발생

- **2021년 계획 매미나방 → 생활사별 맞춤형 방제 추진**
  - (유충기) 어린 유충시기(4월)부터 등록 약제로 선제적 집중방제(화학적방제 등)
  - (성충기) 유아등, 페로몬 트랩 등 활용하여 유인·포살
  - (산란기) 병해충방제차, 고지톱, 끌개(철브러쉬) 등으로 난괴 제거
  - (월동기) 고지톱, 끌개 등을 활용하여 월동난 제거 (10월~익년 4월)

수리산, 시민이 함께 지켜요

지난해 급증했던 매미나방을 기억하세요?
겨울철 나무줄기에 붙어 있는 알집이 올봄 성충이 되어 수리산을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아름다운 수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산행하실 때 등산로에 비치된 도구로 알집을 없애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수리산 구석구석 시민 여러분의 손길로 건강하고 쾌적하게 만들어가요.

- **작업 요령 :** 비치된 끌개의 끝부분으로 알집을 터뜨려 제거
- **주의사항**
  - 손으로 알집을 만지지 마세요.
  - 알집 제거 시 비비지 말고 털어주세요.
  - 끌개는 사용 후 꼭 제자리에 정리해주세요.

문의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 ☎ 031-390-0412

군포시자립생활센터×밸류브릿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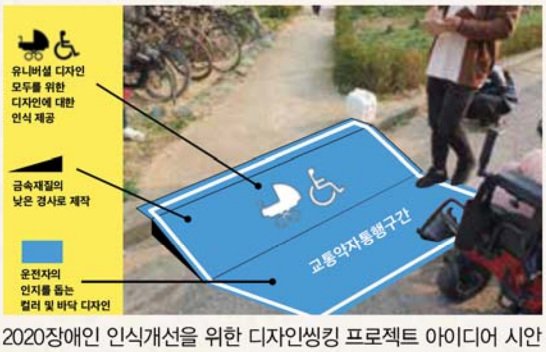
이동약자를 위한 '모두의 통행로'를 디자인하다

군포시자립생활센터와 밸류브릿지는 교통약자 이동 문제 개선을 위한 '모두의 통행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모두의 통행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 어르신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경사로이다.

공감을 통한 프로젝트 '모두의 통행로'

'모두의 통행로 프로젝트'는 사람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공감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기획하여 창의적인 변화를 이끄는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디자인 씽킹은 사람 중심의 공감과 관찰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빠른 실패와 협업(집단지성)으로 창의적인 변화와 솔루션을 만들어 가는 기획 과정이자 마인드셋이다.

현재 디자인 씽킹은 디자인 산업을 넘어 공공, IT, 마케팅, 예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장애



2020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디자인씽킹 프로젝트 아이디어 시안

VOICEYE
voiceye.com

“
교통약자 통행로를 눈에 띄게 만들어 주차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교통약자 권익보호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평범한 사고에서 비롯됐다
”

인 인식개선을 위한 디자인 씽킹 프로젝트는 디자인씽킹의 5단계의 프로세스(공감-정의-아이디어-프로토타입-테스트)를 기반으로 지역의 청년예술 가들과 청년 장애인이 함께 장애인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장애 인들을 향한 새로운 인식을 열도록 돕는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팀은 이동에 불편을 겪는 청년들의 일상을 함께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동경사로 앞에 주차된 차량이 휠체어 진입을 막아 교통약자들의 이동제약 문제가 가장 시급함을 발견하였다. 이에 경사로 앞 주차방지 디자인을 제작·실행하고 “경사로=교통약자 통행로”라를 사실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나갔다.

군포시자립생활센터는 본 프로젝트를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장애청년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리동 가야아파트 내 장애청년의 자택 앞에 ‘교통약자 통행로’를 설치했다.
해당 참가자는 “그동안 경사로 앞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하기 눈치가 보였었는데 이제는 그림이 있으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군포시자립생활센터 박병철 대표 또한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며 “이 사업을 시작으로 군포시민의 의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 장애인, 노인, 유모차 등 이동약자를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갖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평소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었는데, 배려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이런 불편한 곳들을 찾아서 이동약자들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두의 통행로 프로젝트’ 동영상은 군포시자립생활센터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군포시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09년 개관한 비영리단체이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권익옹호, 지역사회 차별요소 개선, 탈시설 자립지원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군포시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권익옹호, 지역사회 차별요소 개선, 탈시설자립지원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이며, 밸류브릿지는 문화기획 전문기업으로 ‘공감적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를 통해 일상의 필요와 문제를 가치로 바꾸는 ‘공감문화’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군포시자립생활센터 ☎ 031-399-2541

자연스러운 삶의 색을 탐구하다

산화랑 구영희 대표

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만난 산화랑 구영희 대표는 군포살이 23년 차의 예술가다.
산화랑은 팍팍한 서울살이에 지쳐 시골살이를 위해 찾은 그와 가족들의 보금자리이자 창작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마을주민들을 비롯한 마을공동체를 위해 모인 시민들의 사랑방이다.

23년 전 오늘, 다시 꽃피다

구영희 대표(57)를 만나기 위해 그의 공방이자 작업실인 산화랑을 찾았다. 여느 시골 마을의 소박한 풍경 그대로인 산화랑은 낯섦과 익숙함의 반복이 아슬한 경계를 통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재미난 공간이었다. 무쇠 난로, 대문을 무심히 오가는 고양이와 강아지, 아담한 화덕, 여기저기 걸려있는 그림과 공예 작품들 이 모두가 산화랑의 표정을 만드는 요소들이다.

슬하에 3남매를 둔 구영희 대표가 군포시 대야동 수리산 자락 덕고개 마을에 터를 잡게 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8년으로, 팍팍한 서울살이에 대한 회의와 경제적 이유가 컸었다. 당시 구영희 대표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입시 미술학원을 운영했고, 남편인 하섭 씨(58)는 미술 선생님으로 교편을 잡고 있던 중이었다.

처음 군포에서의 삶은 낯설기만 했다. 이웃도 그렇고 마을도 그랬다. 보이지 않는 텃세도 있었고, 삶의 방식도 달랐다. 이에 구영희 대표는 "처음 마을에 들어와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던 지금의 이 집은 세월을 버티느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의 23년 세월이 더해졌죠. 그렇게 마을과 동화되고 섞여가며 이제는 토박이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라며 지나온 세월을 추억했다. 마치 23년 전 뿌린 씨앗이 꽃을 피우듯 그렇게.

마을공동체를 고민하다

마을에서 종합예술인으로 유명한 구영희 대표와 마을 촌장을 자칭하는 남편 하섭 씨의 삶은 자연스럽기 그지없다. 부를 위한 억지도 먹거리에 대한 욕심도 크게 없다. 그저 자연이 또 시간이 주는 그대로의 삶을 지향할 뿐이다. 남편 하섭 씨는 현재도 미술 선생님으로 재직 중으로 구영희 대표의 든든한 친구다.

이런 두 사람의 삶에 마을공동체는 꽤 의미 있는 일이다. 구영희 대표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산화랑예술학교와 군포도시농부학교, 군포 현장체험학습장 산공방 사업장도 꾸리고 있다. 지난 2014년 대야미마을협동조합에서 대야미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시작으로 마을갤러리와 군포공예문화협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이처럼 수많은 활동들 중 그가 꼽는 전략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과 문화예술가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다. 다만 여전히 고민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바로 기관의 주도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을공동체가 보다 자연스럽게 논의의 구조로 익어갈 수 있도록 개개인의 삶과 에너지가 더해지길 바라는 마음인 것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활동이 거의 전무할 정도였다. 다행히 구영희 대표 스스로에게는 개인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3월부터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시작으로 산화랑을 역할을 더욱 키워볼 생각이다.

구영희 대표와 남편이자 마을 촌장인 하섭 선생

Mini interview

Q. '산화랑'에 담긴 의미가 궁금합니다.

A. 공동체 활동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모임의 장소로, 즉 공간의 중요성은 상당히 높아요. 20여 년 생활예술을 자연스레 이어온 산화랑 공방 공간을 모임 장소로 사용함으로 공방 이름과 동일하게 명명하게 되었어요.

Q. 어떤 계기로 모이게 되었나요?

A. 산화랑 공간에서 문화예술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던 중 다문화 가정들과 우리의 생활문화 활동 중 '김장김치 담그기'를 함께하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의식이 함양되어 청년단체 연계활동 마을동아리 활동 지역행사 참여 활동을 공유하며 공동체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Q.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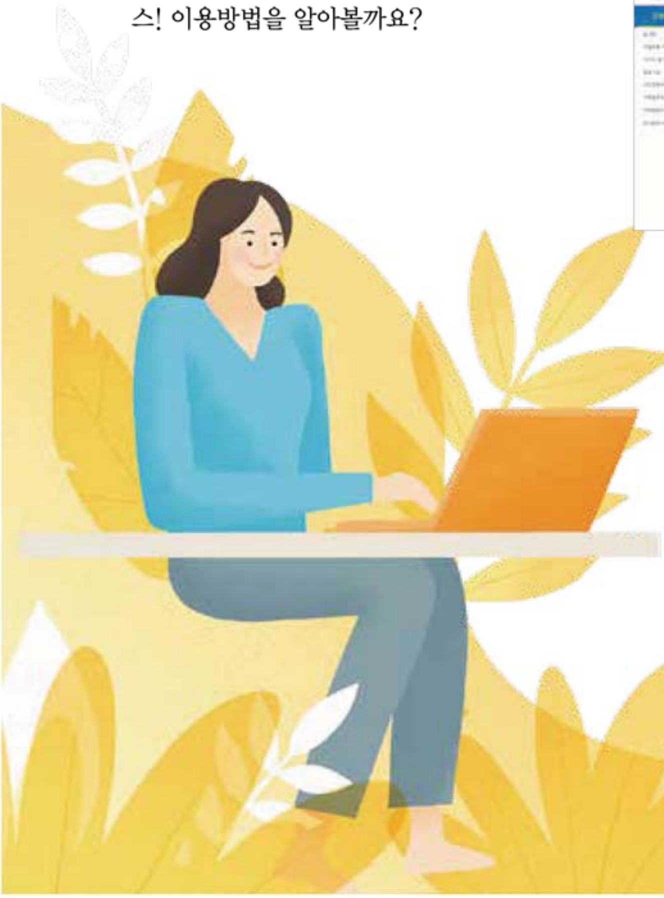
A. 마을동아리 공동체에서는 양봉활동, 요리활동 지원 등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문화예술 공동체에서는 목공활동, 도예활동 지원을 비롯해 마을두레 공동체에서는 벼농시와 소리청 지원 등이 있고 그 외에 김장 꾸러미 나눔 행사도 있습니다.

 글.사진 군포시 시민기자 서단비

도서관 가기 힘들 땐,

군포시 전자잡지서비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꽤 오랜 시간 연장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기며 차차 적응해나가고 있지만, 편의 시설을 맘 편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은 불편하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이용하기 힘든 시설 중 하나가 바로 도서관이죠. 군포시의 도서관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운영 일정이나 시간 등을 조정하고 있어 꼭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군포시 전자잡지 서비스! 이용방법을 알아볼까요?



전자잡지 서비스

군포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독서 콘텐츠인 온라인 '전자잡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시민분들이 어디서든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전자잡지 서비스에서 찾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사, 경제, 교육, 예술 등 국내 200여 종의 전자잡지를 제공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제공된 것이지요! 군포시민이라면 군포시도서관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PC와 모바일 기기 모두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PC와 모바일의 이용 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PC 이용

PC에서 전자잡지 서비스는 '군포시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군포시 도서관 홈페이지(www.gunpolib.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주세요.

② '전자도서관 > 전자잡지' 메뉴에 접속합니다.

③ 원하는 잡지를 검색하거나, 추천 매거진을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잡지보기'를 누르면 가장 최신호를 열람할 수 있고, '목차/지난호 보기'를 누르면 세월이 많이 지난 옛 출판물들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몇 년도 몇 월, 몇 호 잡지인지, 간단한 목차까지 한 눈에 볼 수 있어 원하는 정보를 찾기에도 용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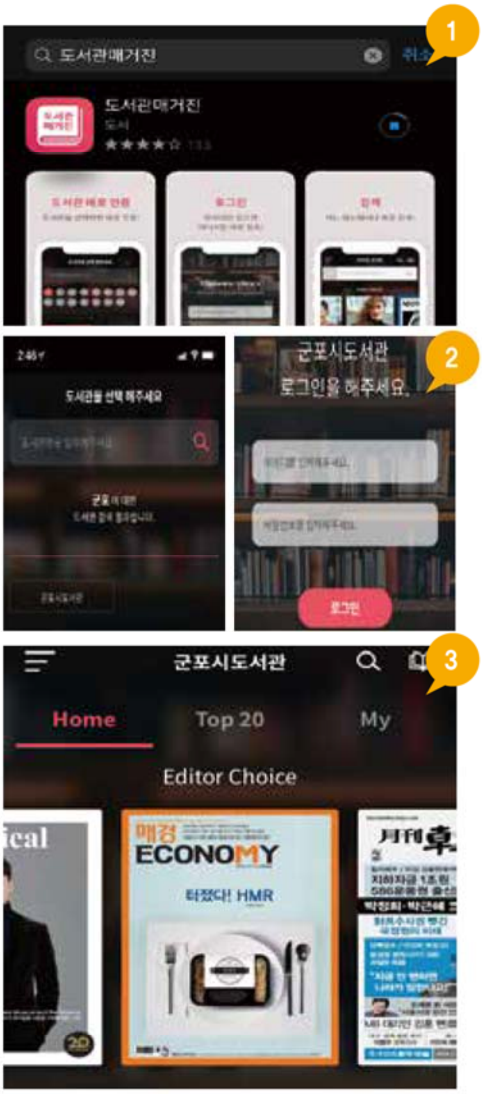
모바일 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PC와는 다르게 즐겨찾기나 TOP 20같은 추가 메뉴들을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①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도서관매거진” 이라는 APP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합니다.

② ‘군포시 도서관’을 선택하고 군포시 도서관의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인증절차를 거칩니다.

③ 인증 즉시 모바일로 전자잡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장점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전자잡지 서비스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뷰어가 어렵지 않고 아이콘이 직관적이라 이용이 용이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오프라인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해왔기에 온라인 서비스는 어렵고 불편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전자잡지 서비스를 통해 잡지를 열람하는 방법이 쉬워서 금방 손에 익어 편리했습니다.

가장 편리했던 부분은 바로 정보 탐색이 쉽다는 점입니다. 잡지명 검색 뿐 아니라 기사 검색이 가능하다는 사실! 나에게 필요한 잡지,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단 몇 분, 몇 초 만에 빠르게 찾아 볼 수 있게 되어 그 부분이 너무 편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도서관에 가고, 잡지를 찾는 수고로움을 모두 덜어내고 집에서 원하는 기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 되겠죠?

또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된 자료까지 연도별, 목차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옛날 자료를 찾아보기에도 어려움이 없어 좋았습니다. 카테고리 정리 또한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딱히 원하는 자료가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분야에 관한 잡지가 보고 싶을 때, 필요한 정보를 찾기 편할 것 같습니다.

여가 시간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 잡지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면, 모바일 전자잡지만큼 편리한 서비스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태블릿 PC로 전자잡지 서비스를 이용해보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의 서재’도 관리할 수 있고 화질도 선명해 전자잡지를 보며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마음 속 여유,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전자잡지 서비스를 이용하며 양식을 쌓고 여유를 되찾아 보는 건 어떨까요? 군포시민을 위한 전자잡지 서비스를 앞으로 많이 찾아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중앙도서관 ☎ 031-390-8874로 문의주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워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거나 바꿔나갈 예정이다.
이는 팬데믹 시대가 막을 내리더라도 계속될 전망으로, 전문가들은 일의 구조가 바뀜에 의해
기업과 워커들은 지속적인 실험적 상황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맞이할 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디지털경제의 가속과 또 다른 전환점

이미 디지털경제의 가속화로 변화가 한창이던 일의 방식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끝나도 많은 기업들이 변화된 일의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일하는 장소와 방식의 변화를 들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재택근무가 변화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장소와 방식을 가리지 않는 형태가 선호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하버드비즈니스스쿨 프리스위라지 초드리(Prithwiraj Choudhury) 교수의 연구 결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유연 근무 노동자의 생산성이 재택근무 노동자보다 4.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연 근무 일자리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인 플렉스잡(FlexJobs)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리모트워크[1]에 적합한 직종에 컴퓨터·정보기술, 의료·보건, 프로젝트 관리, 판매, 회계·재무, 고객 서비스, 마케팅 등을 꼽았다.

변화의 중심 리모트워크

앞서 언급된 리모트 워크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대면을 기본값으로 하는 일의 방식을 말한다.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처럼 온라인으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업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디지털 노마드들을 통해 부각됐던 프리랜서처럼 이해되고 있는 리모트워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직생활에 익숙한 기업들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또한 현재까지는 사무직이 그 중심에 있었지만 향후 여러 분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우리 사회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든 소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리모트워크의 효율성과 효과를 경험한 조직들은 앞으로 업무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최소단위의 조직 구성과 디지털 능력 차이에도 어렵지 않게 활용할 툴 선정에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워커들은 집단의 사무실 환경이 아닌 혼자만의 일터를 만들고 그 속에서 스스로 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원하는 '하이브리드 워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들은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워커(hybrid worker)'[2]를 영입하거나 근속시키기 위해 새로운 인적자원 제도를 마련하고 기술적 역량도 갖춰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문화와 리더십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 최대 컨설팅펌 롤랜드버거도 최근 한 조사연구에서 디지털워크를 통해 더 높은 생산성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기업문화가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감정과 사회적 상호작용 일의 미래에 큰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성공적인 디지털워크[3]를 하는 기업은 직원들 누구도 고립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준비해야 하고, 그래야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워커들은 온라인 툴을 이용해 생산성과 협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에 익숙해지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택근무 확대 계획을 밝힌 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현실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일과 삶의 균형 추구, 온실가스 저감 등 사회현안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하이브리드 근무는 표준 업무 형태로 정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워커들은 스스로 변화에 익숙해지고 당당해져야만 할 것이다.

---

1. 리모트워크(remote work)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장소와 공간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
2. 하이브리드 워커(hybrid worker) 어디서나 일 할 수 있으며, 변화되는 시대에 따라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기술을 가진 인력
3. 디지털워크(digital work) 클라우드 기술이 적용된 통합 기업용 원격근무 솔루션

 글.사진 노유찬

일하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파트너

군포시니어클럽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기본으로,
자존감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긍정적인 노인상을 구축하고 있는 군포시니어클럽은 군포의 대표적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시로부터 2007년 7월에 수탁받아 운영 중이다.

7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군포시니어클럽의 출발은 지난 2007년 7월 사단법인 성민원이 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해오고 있는 14년 차의 젊은 기관으로, 지난해 9월 열린 전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내며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는 작년 한 해에 국한된 것이 아닌 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역사를 써 내려오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시니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본 대회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3개 분야로 나눠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국 지자체와 수행기관 등 14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 군포시니어클럽은 전국 최초의
> 노인일자리 전용건물인 노인행복센터
> 조성을 비롯해 셔틀콕 생산 업체를
> 자체 운영하는 등
>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에스빔브런치카페

클린깔끄미 활동

군포시니어클럽은 최근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타벅스가 바리스타 교육장을 지원해 어르신 교육은 물론 전국에서 시니어 바리스타를 꿈꾸는 어르신들의 견학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산 셔틀콕 제조사업, 장수사업인 재봉작업장, 실버택배, 에스빔브런치카페, 할매 정성밥상, 노노케어, 보육시설도우미, 공익시설봉사 등 연간 1천 700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왔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군포시니어클럽의 대표 사업은 크게 공익활동,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노인자원봉사사업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공익활동 사업은 지역 내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노인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생애 경험과 지식을 동세대 또는 아동과 청소년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함과 동시에 지역 내 복지시설 및 주거와 생태환경 정화 등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주요 사업이다.

또 시장형 사업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연륜을 살려 진행 중인 '하늠' 재봉을 비롯해 '에스빔브런치카페', '할매정성밥상 금정점' 등 모두 10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사회서비스형은 사회복지시설지원시설과 노인복지지원시설, 그리고 온종일돌봄지원시설 및 노인맞춤돌봄지원과 시니어컨설턴트까지 다양한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포함되어 있다.

이어 취업알선형 사업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당 수요처로 연계해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자원봉사사업은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의 주체로서 사회참여를 통해 노년기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군포시니어클럽

주　소　군포시 금당로69번길 29(당동)
전　화　031-454-2077~8
홈페이지　www.gunpocsc.org

3월 환절기는 면역력 강화가 필요한 때

3월 환절기에는 기온 변화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이 때문에 감기나 독감 등과 같은 계절성
감염질환은 물론 대상포진과 같은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나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코론나19
여파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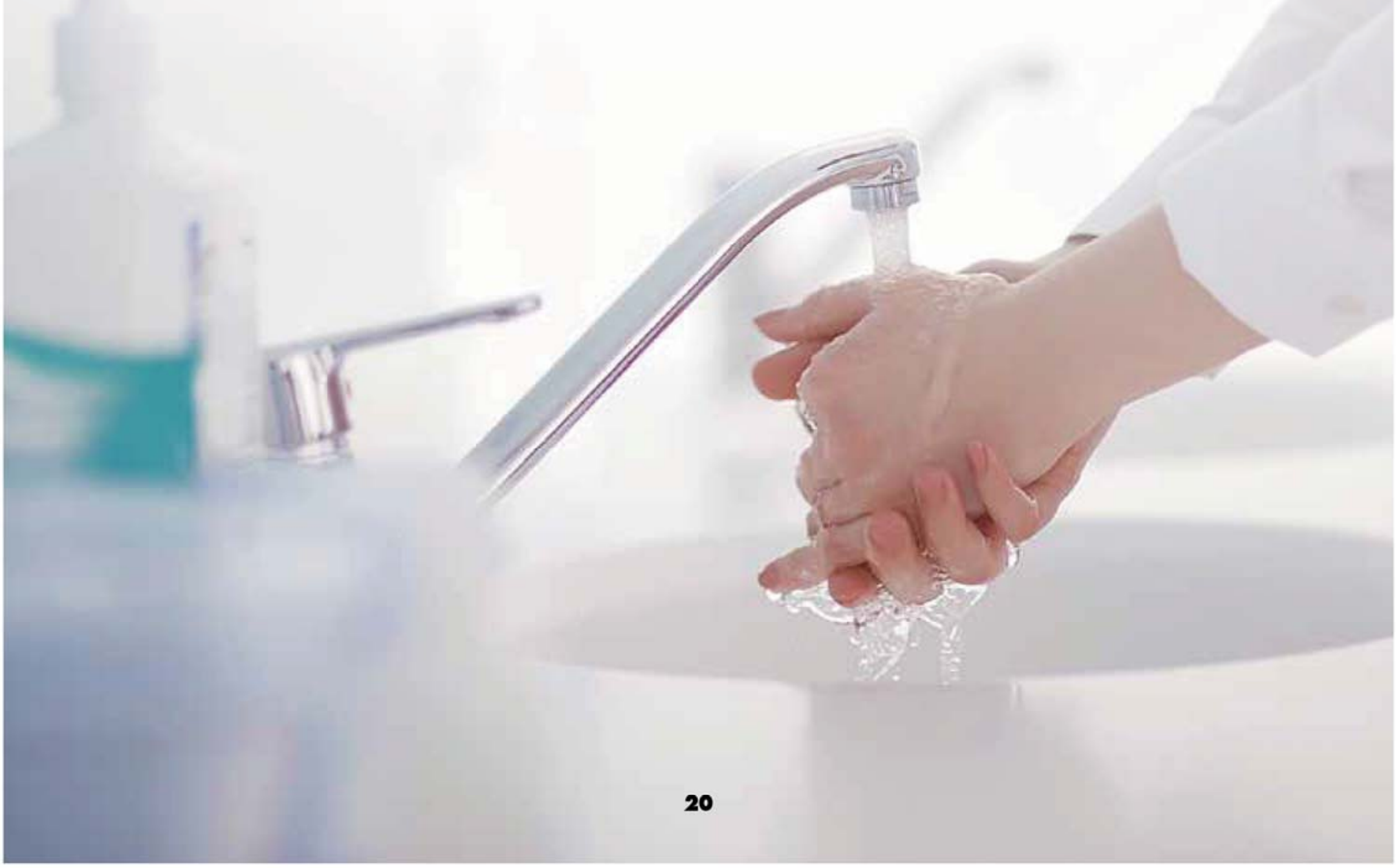
코로나19 유행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든 호흡기 감염병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절기 대표 질환인 독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발표가 눈길을 끈다. 이는 마스크의 일상화와 개인위생 수준이 높아진 이유로 감염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올 통로가 차단된 탓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지난해 질병관리청(KDCA)이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52개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호흡기 바이러스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올해 국내 호흡기 바이러스 양성률은 3월에 12.7%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7%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질환 예방의 기본은 손 씻기부터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을 예방하는 기본수칙으로 손 씻기를 가장 먼저 꼽는다. 손만 잘 씻어도 감염질환의 60% 정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행동은 감염질환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개인위생은 필수인 시대가 됐다.



면역력에 좋은 3월 제철음식

환절기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 몸이 체온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 이 때문에 환절기는 피로감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알레르기 질환 등 봄철 유행질병을 이겨내고 건강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증강시켜줄 3월의 체철음식을 소개한다.

+ 봄의 전령사 달래와 냉이

달래와 냉이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나물로 특유의 향기가 매력적이다. 먼저 달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겨우내 움추려있던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며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다. 이와 함께 냉이는 비타민과 단백질,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한 것은 물론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과 활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 봄 딸기에 풍부한 황산화 물질

봄철 딸기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딸기는 1~5월이 제철이며, 봄에 재배되는 딸기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또 비타민 C의 함유량이 레몬의 2배나 될 정도로 풍부해 면역력 향상은 물론 감기 예방과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 취나물 봄철 주인공은 나야 나

취나물은 산에서 자라는 산채 중 하나로 이때가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난 시기다. 봄철에 나는 취나물은 '참취'라고 불리는데, 나물은 물론 쌈으로 즐겨도 좋다. 특히 비타민과 무기질, 칼륨이 풍부한 취나물은 들깨와 함께 볶아 섭취하면 단백질과 지방이 더해져 영양상 균형이 조화로워진다. 또 칼륨이 풍부해 체내의 염분을 배출하는데 효과가 좋아 장의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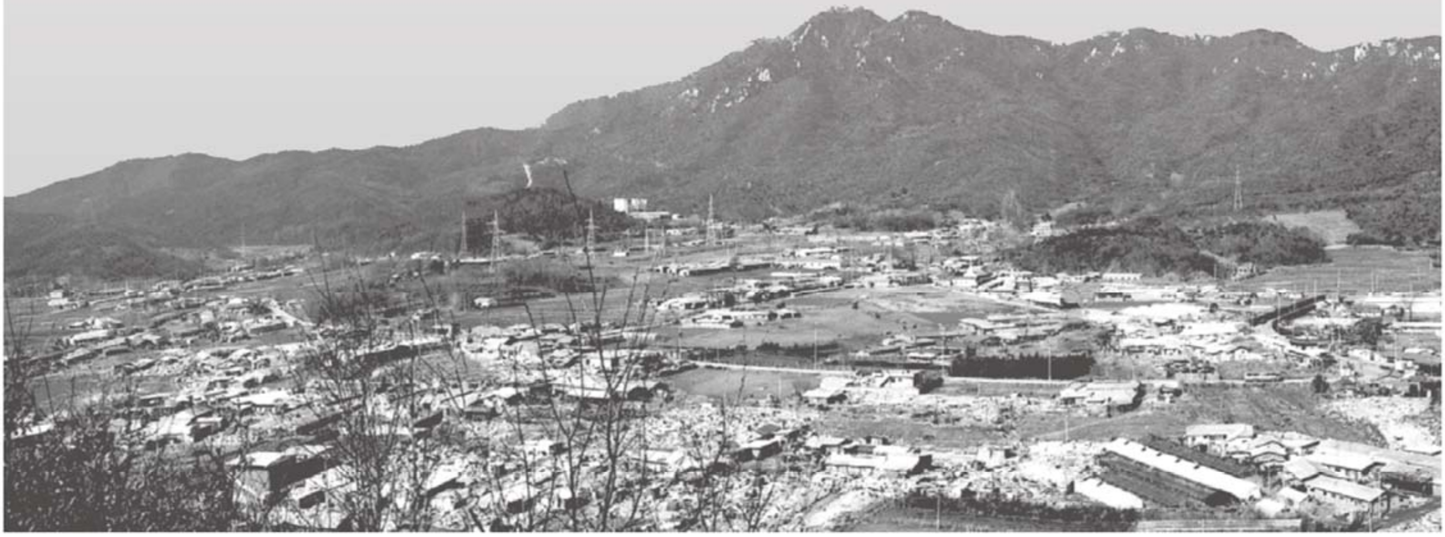
군포 아리랑

산본신도시의 어제와 오늘

경기도 군포시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산본 신도시는 수리산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 '산본(山本)'이라는 지명은 이곳이 수리산 바로 밑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산본은 과거 '산저(山底)'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 역시 '산 밑'이란 순 우리말 이름의 한자식 표현으로 산본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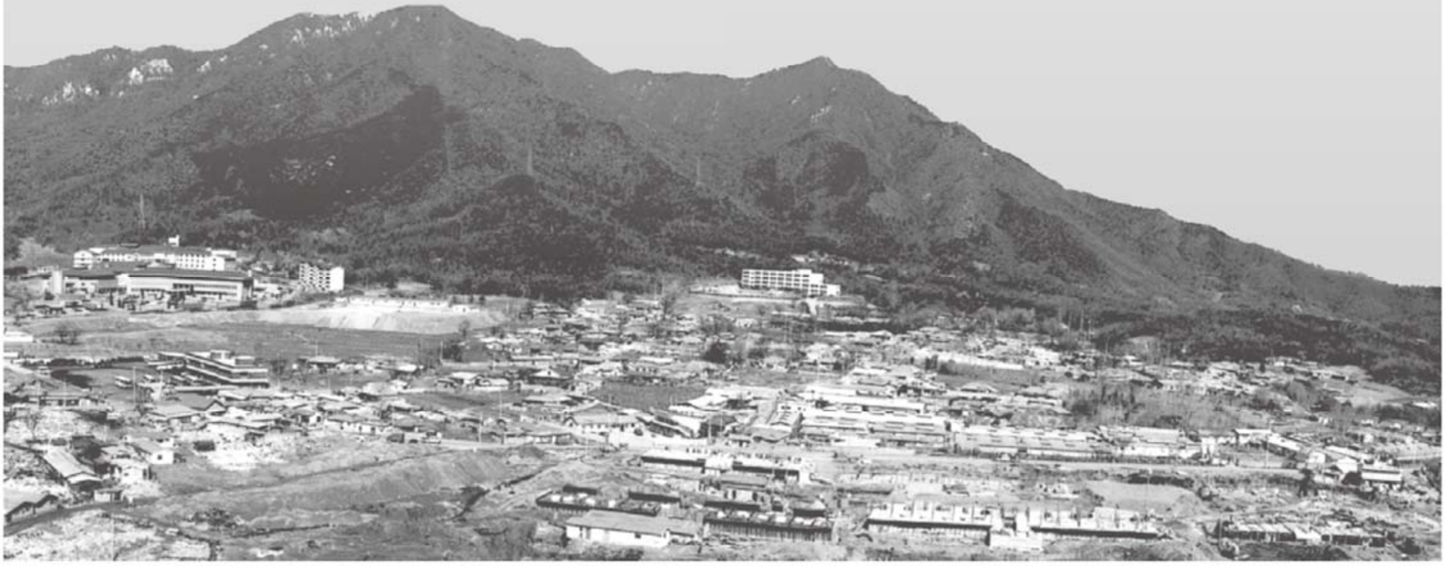
산본 신도시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일종의 분지 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산본 신도시의 동쪽에는 모락산(385m), 서북쪽에는 수리산(488m), 남쪽에는 오봉산(205m)이 위치해 있고, 신도시 동쪽으로 안양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

서울 도심에서 남쪽 25km 지점에 위치한 산본 신도시는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투기 열풍 해소, 수도권의 기능 분담을 목적으로 건설된 수도권의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가운데 하나이다. 이 신도시는 '군포시의 새로운 중심업무지역 기능을 하는 신시가지의 건설',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전원도시'를 목표로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건설됐다.



개발 전 산본 전경

현재 군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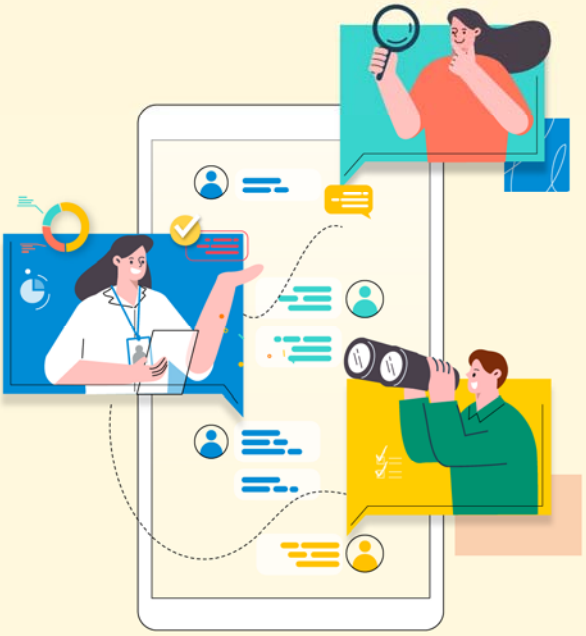


※ 군포 아리랑은 군포의 옛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봄으로써 군포의 내일과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비대면 시대

취업도 알바도 '홈터뷰'가 대세

지난해부터 채용의 기준 중 가장 크게 달라진 트렌드는 비대면 시스템의 도입이다. 시험장이 아닌 집에서 온라인 필기시험을 치르고, 회사에 방문하는 대신 집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등 언택트 채용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취업 전문 사이트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 결과 인사담당자 71.3%가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도 언택트 채용을 도입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비대면시대 면접 노하우

첫 번째 AI 면접 노하우

AI 면접은 컴퓨터가 프로그램화 돼 있는 로직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원자는 대면 면접과 다른 대비가 필요하다. AI는 면접 과정 전반에서 지원자의 4가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포인트를 이해하고 사전에 연습하는 것이 좋다.

1. 시각분석 : 어두운 표정보다는 밝은 표정을 짓자.
2. 음성분석 : 또박또박 일반 톤으로 말하자.
   떨리는 목소리보다 자신 있는 목소리로 답변하자.
3. 생체분석 : 안정된 마음으로 차분하게 답변하자.
4. 언어분석 : 부정적인 표현보다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자.

두 번째 화상면접 노하우

화상면접 준비는 대면 면접과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 면접관이 검증하고자 하는 평가 요소들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화상면접의 특성상 다음 3가지를 참고하면 좋겠다.

1. 면접관의 질문을 집중해서 듣고 질문의 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파악이 안 되었을 때, 정중하게 다시 요청하는 것도 좋다.
2. 답변을 할 때는 전달력이 중요하기에 씩씩한 목소리로 결론부터 말하고, 근거를 이야기한 뒤 강조하고 마무리하면 된다.
3. 안정된 자세와 시선 처리도 중요한 부분이다. 면접관이 화면을 통해 지원자를 볼 때, 작은 움직임도 쉽게 눈에 띄고 큰 동작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면접관의 평가 포인트

비대면 면접 지원자들 중 오히려 대면 면접에 비해 심리적인 부담이 적었다는 반응이 많다. 다만 면접관의 반응을 몰라 답답한 경우가 있어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2가지를 평가한다.

1. 우리 회사의 조직문화에 적합한 사람인가?
2.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추었는가?

"나, 내일부터 출근한다"

군포시가 추천하는 이달의 일자리 정보!

기업정보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 임금
(주)멘토커리어 서비스 군포시 번영로 82, P동 (부곡동)	창고 관리원 (자재 검수원 포함).2명	09:00~18:00 월급 203만원 이상
부광전자주식회사 와이어 하네스 가공 및 수위센서 제조 군포시 당정로 14, . (당정동)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전기·전자·컴퓨터).1명	09:00~18:00 연봉 2,800만원~4,000만원 이하
(주)샐러드판다 병샐러드 제조/판매 군포시 당정로60번안길 10-1, 1~2층 (당정동)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2명	07:00~16:00 시급 8,720원 이상
주식회사 에코아이 전동스쿠터,전동킥보드 관련 무역, 수입유통 및 제조 군포시 농심로 2, 스카이비즈 901~904 (당정동)	산업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1명	09:30~18:30 연봉 3,200만원~4,000만원 이하
(주)코아전기 Reactor 등 제조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53, 코아빌딩 (부곡동)	기술 영업원.1명	09:00~18:00 연봉 3,500만원 이상
삼양통상(주) 피혁제조 군포시 공단로 90(당정동)	제조 단순 종사원.3명	08:00~17:00 월급 200만원 이상
(주)진한 산업,가정용플라스틱일반성형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55, 진한 (당정동)	자재·구매·물류 사무원.1명	08:30~18:00 월급 195만원
리모트솔루션(주) 리모트 콘트롤 제조 및 판매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71, 부곡동	전기·전자 부품· 제품 조립원.3명	현 근무시간 08:30~17:30 주5일 근무 (약 1~2개월 후 2교대(주말휴무)로 근무예정 ex) 8:30~17:30 / 20:00~익일 08:00) 시급 8,720원 이상
(주)스칸디아 친환경 건축자재 군포시 엘에스로91번길 73 (금정동)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3명	09:00~18:00 월급 200만원 이상
(주)신흥푸드 농산물 도매 및 소매업/떡재료 군포시 삼성로87번길 9, 101 (당동)	회계 사무원.1명	08:30~17:30 월급 190만원~200만원 이하

※ 2021년 2월 20일 기준 자료로 구인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구인구직정보는 일자리센터(031-390-03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군포소식이 시민 여러분의 행복소식을 기다립니다

분야 시·수필(자유 주제)

분량 1,100자 이내(10포인트 기준 A4 반장 내외)

참여 이메일 **hslee97@korea.kr** 제출 주소 및 연락처(모바일) 기재 필수

* 원고가 게재되면 소정의 참여 보상 지급 : 3만원 상당,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 (사전 연락 없음.)
* 기고 제출 시 원고료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최근 6개월 내 원고 게재자는 독자기고 **참여가 제한**됩니다.
* 제출기한은 **매월 18일까지**입니다.

korea.kr 메일은 공무원 보안메일로 수신을 하여도 수신확인으로 뜨지 않습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메일 확인하고 있으니 기고 제출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꽃을 가꾸던 경비원 아저씨

유재범

매년 봄이 되면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단지 앞 화단에서 열심히 꽃을 심고는 하시던 경비원 아저씨 한 분이 자연스레 떠오르게 된다.
분리수거나 택배, 주차 관리, 미화 등 본연의 업무에도 바쁘실 터인데 잠깐 잠깐 시간 날 때 마다 모종에 꽃을 심고 물을 주시느라 동분서주하던 모습이 기억에 난다.
자신이 관할하던 구역 외에도 다른 동 앞 화단에까지 모종과 삽, 물뿌리개를 리어카에 싣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시기도 하셨다.
심으시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아하고 나면 가지를 솎아내고 물을 주는 등 정성스레 다듬는 모습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아저씨를 볼 때마다 기존에 업무도 바쁘실 터이고, 꽃을 심는다고 누가 보상하는 것도 아닌데 쉬엄쉬엄 하시라고 해도 아저씨는 흰 이를 드러내시며 씩 한 번 웃음지은 다음 계속 할 일을 하실 뿐이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꽃을 심고 가꾸셨는지는 그런 광경들을 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지역신문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꽃이 많아지니 마을에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사시사철 꽃 피우는 아름다운 꽃밭과 산책로에서 이웃들 간 자연스레 인사말이 오가고 그것이 바로 이웃 간 소통의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아이들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데도 보람된 일이라고도 말씀도 덧붙이셨다.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함을 선사하고 싶다는 것이 아저씨의 바람이셨던 것이다
봄철 아파트 단지 화단에 전체적으로 꽃이 화사하게 만개하니 전체적으로 동네의 분위기를 밝게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도 같다. 그래서 아파트를 찾아오는 사람도 미소 짓게 만들고 입주하려는 사람도 늘어나게 만들지 않나 생각해 본다.
전체 주택의 60%가 넘을 정도로 우리의 주거양식이 된 아파트, 하지만 그로 인한 인간관계의 개인화와 공동체 의식 결여에 대한 우려 또한 문제시 되어 왔는데 그런 현대인들의 고민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아저씨께서는 꽃을 심으면서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 많은 것들을 어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VOICEYE
voiceye.com

곧… 입학

김지영

열 달 동안 비좁고 어두컴컴한
엄마 뱃속에서 둘이 뒤엉켜 지내다
탁트인 밝은 세상밖으로 나온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너희들의 버팀목인 엄마 눈에는
아직도 마냥 어리고 그때의 꼬꼬마로만 보이는데
벌써 너희들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첫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니 신기하고 기특하구나.

새로운 환경에 낯설고 두렵겠지만
항상 너희들의 영원한 편, 든든한 백그라운드인
엄마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펼쳐질 그곳에서 잘 생활하기를 바란다.

슬픔도, 기쁨도 두 배 쌍둥이 딸들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봄바람

이효건

우리가 있는 도시에
세 들어 사는 봄바람은
겨울동안 몸을 움추리고
하얀 동화를 쓰고 있다가

기다린 계절을 흔들며
서서히 녹색으로 번져온다

호수가 잔잔한 물결에 흔들리면
봄바람 물길 따라 흘러가며
이 동네도 봄 저 동네도 봄하며
녹색 속에 보라색 제비꽃 피운다.

우리동네 예찬

박철원

산본에 이사 온지 이제 19년이 되었다.
안양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기에 어디 가서는 안양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 안양사람은 아니다. 군포시민이지 안양시민은 아닌 것이다. 기간으로 말해도 안양시에서 살았던 기간보다 군포시에서 산 기간이 더 길다. 그리고 누군가 내게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산본 산다고 말한다.
그러나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했던 나는 동료들이 사는 곳을 물어보면 자신 있게 군포 산본에 산다고 말을 못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반응이 '산본이 어디야?'하고 되묻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양에 산다고 다시 말하면 그제서야 어디인지 알겠다는 반응이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에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포시를 잘 모른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나는 그냥 안양권이라고 말하게 되고 남들도 안양에 사는 것으로 알게 있다. 엄격하게 말해서는 틀린 말이지만 그냥 그렇게 뭉뚱그리고 넘어간다. 물론 가끔은 '어떻게 산본을 몰라?'하고 가멸찬 반응도 하고는 했지만 다른 동료들의 반복된 반응에 이내 나도 뭉뚱그려 말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다.
그래도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서울에서 느끼는 공기의 질과 산본역에 내려서 맡는 공기의 질은 순도가 다르다. 물론 내가 사는 곳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동네의 공기는 정말 '사람 사는 동네, 인간다움이 느껴지는 곳'이다. 글쎄, 서울사람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빽빽한 빌딩숲에서 느껴지는 각박함에서 일상을 보내고 저녁때 즈음 우리 동네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사람 내음 나는 공기는 같은 도시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동네를 예찬하게 한다. 아직 내가 사는 산본이 누군가에게는 낯선 도시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나를 반겨주는 따스한 도시라고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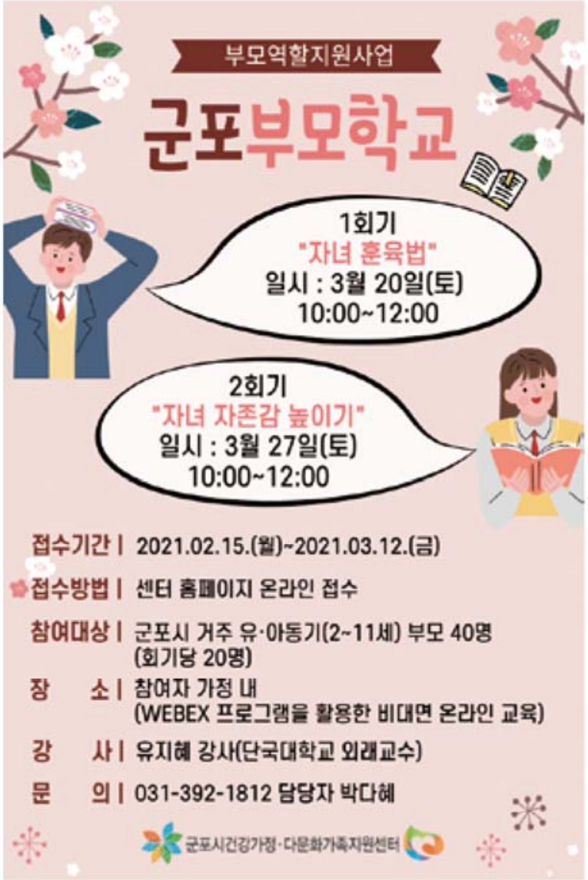
다정다감 군포 U 뉴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말(言)·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로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명함 교부 선거운동 규제 완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2회 실시합니다.
4월
10월
첫 번째 수요일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합니다.

군포시미디어센터
3월 미디어교육 수강생 모집
시민들을 위한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
신청기간 2021. 2. 19.(금) 10:00 ~ 2021. 3. 5.(금) 22:00
신청방법 군포시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접수(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www.gpmedia.or.kr
프로그램
프로그램 / 교육일시 / 모집인원 / 수강료 / 모집대상 / 교육방식
영화 속 여성에 대하여 / 3.10 ~ 3.31 (매주 수) 19:00~21:00 / 4회차 / 15명 / 10,000원 / 성인 / 비대면
체험프로그램 강사 양성 (영상스튜디오) / 3.12 ~ 4.9(매주 금) 13:30~15:30 / 5회차 / 7명 / 10,000원 / 성인 / 대면
체험프로그램 강사 양성 (라디오스튜디오) / 3.12 ~ 4.9(매주 금) 10:00 ~ 12:00 / 5회차 / 5명 / 10,000원 / 성인 / 대면
랜선 여행기 (나만의 VLOG 영상제작) / 3.18 ~ 5.6 (매주 목) 16:00 ~ 18:00 / 8회차 / 15명 / 20,000원 / 만 15세 이상 / 비대면
※자세한 사항은 안내게시문 및 군포시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교육문의 ☎ 031-399-8976~7 (미디어정보교육팀)
군포시미디어센터

소방차가 막히면
생명길도 막힌다
나 하나 쯤이야 하는 불법주차가 모여 소방차 출동의 장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시간이 지연됩니다.
이 지역의 도로는 지정된 공용주차장외에 모든 구간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과의 약속장소로 이동전에 5분만 시간을 내어 지정된 주차공간에 이동주차 해주세요.
군포경찰서
군포소방서

VOICEYE
voiceye.com



2021년 군포시 생활법률상담 운영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운영 중단하였던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재개합니다.

- 상담일시 : 2021년 3월 3일~12월
  - 법 률 : 주 2회(매주 월·수요일) 10:00~12:00 ▶ 당초 주 3회(월·수·금) ▶ 주 2회(월·수)로 변경
    ※ 월요일 및 1·3주 수요일 : 변호사, 2·4주 수요일 : 법무사
  - 세 무 : 월 1회(넷째주 화요일) 10:00~12:00
- 상담인원 : 선착순 6명
- 운영방법 : 사전예약을 통한 전화상담 방식으로 운영
- 문 의 : 기획예산담당관 031-390-0043

다정다감 군포 U 뉴스

2021 장학생 선발안내

(재)군포사랑장학회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군포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선발인원 : 고등학생 52명, 대학생 : 78명
  ※ 분야별 선발자격 및 선발 현황 : 홈페이지 참조
- 장학금액
  - 고등학생(성적최우수 : 1,000,000원, 일반분야 : 800,000원)
  - 대학생(장원 : 3,000,000원, 일반 : 2,000,000원)
- 접수기간 : 2021. 3. 11(목) ~ 3. 19(금)
- 접수처 : 장학회 사무국(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 옆)
- 문　의 : 장학회 사무국(031-390-0995~6)
- 공고문 : 장학회 홈페이지 www.gunpolove.or.kr
- 분야별 선발현황 및 장학금액
  - 고등학생 선발 현황표

(단위 : 학년, ○=선발, ×=미선발)

구분	관내 고등학교			관외 고등학교		
	1	2	3	1	2	3
성적최우수	학교장 추천에 의함			×	×	×
성적우수	전학년 선발없음			×	○	○
자립지원	×	○	○	×	○	○
면학장려	×	○	○	×	○	○
특기장학	○	○	○	○	○	○

2021 진로·진학 상담 운영 안내

군포시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1 상담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 선택과 진학에 도움을 드리고자 2021년 진로·진학 상담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여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로·진학 상담 운영

- 운영기간 : 2021년 2월 ~ 12월
- 장　　소 : 군포시 열린소통방 및 시민맞이방(2층)
- 상담내용 : 진로·진학, 학습, 고입·대입 상담 등
- 운영방법 : 사전 예약, 1:1 맞춤형 상담 실시
- 상담신청
  - 신청방법 : 군포시 www.gunpo.go.kr
  ☞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인터넷접수 ▶ 진로진학상담신청
- 문의사항 : 청소년청년정책과 031-390-0788
  ※ 생기부나 모의고사 성적 등의 참고자료 지참

3~4월 신청 안내

- 운영방법: 비대면Zoom 화상강의
- 대　　상 : 군포시민 성인 (도서대출 회원)
- 신청기간 : 강좌별 상이 (강의일 20일 전 모집 실시)
- 신청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도서관 홈페이지(www.aungoli.go.kr) 문화행사 문화행사신청 인문학강좌 신청 65세 이상 전화접수 가능 (비대면 수업용 기기 필요)
- 문　　의 : 산본도서관팀 ☎ 390-8842

3월 군포시 사서가 권하는 "이 책 어때요?"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 장원청

수치심 권하는 사회 / 브레네 브라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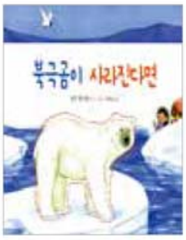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 정호승

걱정 삼킨 학교 / 김지연

편견 / 제니퍼 에버하트

좀 더 진화한 공룡 도감 / 고바야시 요시쓰구

그림으로 화해하기 / 김지연


북극곰이 사라진다면 / 릴리 윌리엄스

걸어 다니는 어원 사전 / 마크 포사이스

세상에 이런 말이! / 니콜라 에드워즈

나는 오늘도 너에게 화를 냈다 / 최민준

궁금한 아파트 / 박현숙

군포시의회 뉴스

군포시의회 '행복나눔봉사단', 지역복지관 도시락에 온정 담다

군포시의회 행복나눔봉사단은 1월 25일 군포시 가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세 끼 도시락 140개를 직접 준비하며 온정을 베푸는 시간을 가졌다.

군포시의원 8명 및 의회사무과 직원 등 12명은 이날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반찬 조리부터 포장, 배달까지 도시락 준비 전반을 손수 도왔다. 반찬으로 제공될 산적을 부치고 청포묵 무침과 소불고기를 포장하며 도시락을 정성껏 마련했다.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으로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의원 한명씩 일일이 배당된 집에 찾아가 도시락을 전달하며 잠시 따뜻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성복임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복지관 급식이 도시락으로 대체됐다"며 "비록 모든 분의 얼굴을 직접 보고 따뜻한 말을 건넬 순 없었으나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통해 어르신들께 온기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활동인 만큼 앞으로도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 '행복나눔봉사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하고자 의원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만든 봉사단체다.

군포시의회, 장애인 인식개선, 가정폭력 교육 등 의원역량 강화에 힘써

군포시의회는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 바르고 성숙한 인식을 갖추어 참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꾸준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월 27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박지숙 강사(군포시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실생활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용어나 정보를 짚어주면서 인식의 범위를 넓혔고 장애인 차별 금지와 관련된 사례,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위한 인식개선 등을 강의했다.

2월 24일에는 신명화 소장(군포시 가정폭력상담소)이 가정폭력에 대해 교육하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정폭력 현황과 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책 강화 방안 등을 살펴봤다.

성복임 의장은 "지난해 군포시의회는 발달장애 예술인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공존할 수 있는 군포가 되도록 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도 관내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춰 위기가정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의회, 신축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군포시의회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군포역전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군포시의원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과일과 채소 등 농·특산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상인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장보기 행사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인원으로 분산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성복임 의장은 "설 명절 장보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 시장 상인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숨은그림 & 퀴즈

숨은그림 셔틀콕, 눈사람, 나뭇잎, 국자, 스마일, 부채, 피아노건반, 안경

수수께끼 군포시 군포2동과 대야동에서 분리되는 새로운 군포시 12번째 동이름은 ○○○이다. (4페이지 참고)

숨은그림과 수수께끼의 정답을 모두 표기 사진을 촬영해 3월 20일까지
이메일 hslee97@korea.kr로 제출해 주세요.
다섯 분을 추첨해(개별 공지)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난 호 정답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발표)

이*지(4005), 강*숙(0391), 이*민(0982), 김*희(3277), 최*희(4914)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동의

예 □ 아니오 □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 당첨 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 성명, 휴대전화 번호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보유 후 파기

정답제출 유의사항

- **이메일 응모 시 이름, 휴대전화 번호 표시 필수(휴대전화 번호 잘못 기재 시 당첨 취소)**
- 대용량 사진 파일 첨부 금지(다음, 한메일은 대용량으로 첨부되므로 이용 금지)
- 최근 6개월 내 당첨자는 추첨에서 제외

※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시 추첨에서 제외

지난 호 정답

수수께끼 : 민원콜센터
숨은그림 : 도끼, 손소독제, 시계, 새, 버스, 의자, 노트북, 마우스

VOICEYE
voiceye.com

03 CULTURE CALENDER

●공연기획팀 ●수리산상상마을 ●도서관 ●생활문화팀 ●창작진흥팀 ●군포문화재단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군포시생활문화센터 1분기 수시대관
사용대상 : 시민 누구나(3인 이상 동호회), 1~2인(개인연습실)
대관시설 : 군포시생활문화센터
(공연예술 연습공간, 시각예술, 문화나눔 창작공간)
접수기간 : 3. 31.(수) 18:00까지 / 이용기간 : 3. 31.(수)
대관사용료 : 시간당 10,000원 / 개인연습실 5,000원
선착순 접수 : gpcenter3040@naver.com
홈페이지참조 : www.gunpoculture.or.kr
문의 : 031-390-3044

2

3

2021 군포시생활문화센터
'전시 공간지원' 참여자 모집
군포시민 및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대상 전시 등 창작발표를 위한 공간 지원
(최대 2주 이내)
접수기간 : 2. 2.(화) ~ 연중 수시모집
장　　소 : 군포시생활문화센터 커뮤니티갤러리홀
참　　조 : www.gunpoculture.or.kr
문　　의 : 군포시생활문화센터 031-390-3043

4

5

어린이창의예술센터
토요가족 워크숍 〈자연채집〉
'공존모색'과 연계해 자연에서 자기 표현의 세계를 접하는 가족 단위 교육
교육기간 : 3. 27(토)까지
운영시간 : 매주 토요일 14:00, 회차 당 최대 7가족
교 육 비 : 가족 단위 5,000원
신청방법 : 사전 온라인 접수
문　　의 : 031-390-3032

6

7

작심30일 프로젝트
인증기간 : 3. 8.(월) ~ 4. 6.(화) 30일간
내　　용 : 30일 동안 매일인증을 통해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온라인 기반 프로젝트
참여대상 : 만19세 이상의 시민 누구나
참여혜택 : 주 단위(4주), 최종 30일 인증 참여자 대상 리워드 증정
홈페이지 참조 : www.gunpoculture.or.kr
문　　의 : 031-390-3044

8

9

10

11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일시 : 3. 11.(목)~12.(금) 20:00 / 3. 13.(토) 15:00, 19:00
장소 :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입장료 : 전석 40,000원
문의 : 031-390-3500~1

12

군포의 숨겨진 보물展_ 전통미장 명장 김진욱
전시 : 3.12.(금)~28.(일)
※월요일 휴관
장　소 : 군포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입장료 : 무료
문　의 : 031-390-3500~1

13

14

시각예술콘텐츠지원 '취미는 예술'운영
시각예술분야 상품개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간 : 3월 ~ 11월
장소 : 군포시생활문화센터
참조 : www.gunpoculture.or.kr
문의 : 031-390-3043

15

수리산상상마을 8기(4~6월)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접수일정 : 3.17(수) 09:00~3. 28(일) 18:00
교육기간 : 4. 5(월) ~ 6. 25(금) / 총 10~12주
수 강 료 : 각 강좌별 36,000원~63,000원
신청방법 : 수리산상상마을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문　　의 : 031-390-3080

16

17

2021 군포아트마켓 4월 참여자 모집
접수인원 : 총 30팀
접수기간 : 3. 17.(수) ~ 4. 7.(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www.gunpoculture.or.kr 홈페이지 참조)
참가비 : 15,000원
문　의 : 031-390-3043

18

2021 성인문해교육 느티나무학교 수강생 추가 모집
교육과정 : 느티나무학교 1, 2단계(총 2강좌)
접수일정 : 2021. 3. 17(수) 09:00 ~ 마감시
접수인원 : 각 강좌별 12명
교육기간 : - 1단계 : 4. 6(화)~9. 2(목) 매주 화, 목 14:00~15:30 주 2회 20주
- 2단계 : 4. 6(화)~9. 2(목) 매주 화, 목 12:00~13:30 주 2회 20주
수 강 료 : 각 강좌별 30,000원 / 신청방법 : 수리산상상마을 1층 접수처 방문 접수
문　　의 : 031-390-3080

19

20

21

2021 새봄음악회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와 군포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만남
일시 : 3. 20.(토) 19:00
장소 :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입장료 : 전석 20,000원
문의 : 031-390-3500~1

22

23

군포시평생학습원
단기 특별(4~5월)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접수일정 : 3. 22(월) ~ 3. 26(금)
추가접수 : 3. 29(월) ~ 정원마감시까지
교육기간 : 4. 1(목) ~ 5. 31(월) / 총 6~8주
수 강 료 : 30,000원
신청방법 : 군포시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문　　의 : 031-390-3050

24

25

연극 〈질주〉
한예종 연극원들이 우리 사회 이면인 폭력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일　시 : 2021. 3. 27.(토) 15:00, 19:00
장　소 :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입장료 : 일반석(전석) 5,000원
문　의 : 031-390-3500~1

26

27

28

29

30

2021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운영기간 : 4월 ~ 11월
장　　소 : 군포시생활문화센터 및 관내 문화공간, 문화소외시설 등
내　　용 : 시민 대상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
참　　조 : www.gunpoculture.or.kr
문　　의 : 군포시생활문화센터 031-390-3043

31

생동감아카데미
강　　좌 : 클래식기타 앙상블, 보컬 트레이닝
대　　상 : 시민 누구나
교육기간 : 3. 9.(화) ~ 7. 22.(목) 20주
장　　소 :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스튜디오
수강인원 : 각 10명씩
수 강 료 : 20만원(5개월)
참　　조 : www.gunpoculture.or.kr
문　　의 : 031-390-3044

시민 우선 사람 중심 군포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 안내

○ 재활용품 보상교환

- 장 소 : 시 위생자원과, 동 주민센터
- 기 간 : 2월~11월
- **교환품목 : 투명 페트병 · 폐건전지 · 종이팩**
- 교환기준

교환품목		교환기준
투명 페트병	먹는샘물	투명페트병 20개 (모든 용량) ↕ 종량제봉투 10L 1개
	음료	
폐건전지	망간·알카리 전지	폐건전지 20개(0.5kg) ↕ 새건전지 1세트(AA/AAA) 또는 종량제봉투 10L 1개
	리튬이온 전지	
	니켈카드뮴 전지	
	니켈수소 전지	
	산화은 전지	
종이팩	우유팩	종이팩 1kg ↔ 화장지 1롤 (아래 표 참조)
	주스팩	
	두유팩	

종이팩 1kg ↔ 화장지 1롤	
용량(㎖)	수집량(매)
200	100
500	50
1000	30

※ 교환 시 주의사항

- 투명페트병은 먹는샘물, 음료병만 해당 (커피 테이크아웃잔 등은 해당없음)
- 투명페트병 교환기준은 용량 상관없이 개수로만 판단하여 교환
- 투명페트병 내용물 비우고 라벨 제거한 상태로 압착하여 배출한 경우만 교환
- 폐건전지는 전해액이 흐르는 것은 교환 불가능 ☞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
- 산화 은전지 10개당 폐건전지 1개로 계산
-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서 건조하여 배출

GUNPO YOU

위생자원과(☎390-0334, 0453)